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지오토, 『최후의 만찬』(c1300).
프레스코, 프라도 박물관,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파도바.

† 오늘의 전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마르 14,12-16.22-26 참조)

천사들이 혹시 부러워할 수 있다면, 육신을 가져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성체를 모신 사람은 우주의 임금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천만번 부당한 이런 은혜가 어째서 우리에게 내립니까?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제1독서 탈출 24,3-8 **제2독서** 히브 9,11-15 **복음** 마르 14,12-16.22-26

입당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화답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살아야 할 성체성사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 | 비산성당 주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인류구원을 위해 내어놓으셨고, 또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모든 사람을 성체성사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교회 활동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성체성혈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말로써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안에서 성체성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삶이란 성체성사 안에 드러나는 감사의 삶, 나눔의 삶, 증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당신 자신을 거저 내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우리는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셨듯이 우리 자신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 놓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체성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즉 파스카의 신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체, 성혈을 받아모실 때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 전해야 할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세상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을 증거 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증거의 삶이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체성사는 거행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행과 동시에 삶으로 드러내어야 할 성사입니다. 왜냐하면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세상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감사의 삶, 나눔의 삶, 증거의 삶을 통해 성체성사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분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 자신이 세상의 성체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놓으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교회 때문에 영적 양식을 얻고 구원의 희망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분단 70년 주교회의 담화문(요약)



분단 70년을 맞는 한국 천주교회의 반성과 다짐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과 남과 북으로 분단된 아픔을 겪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귀양살이 70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은총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듯이(2역대 36,21 참조), 올해 2015년이 분단과 갈등의 7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를 여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언자적 소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2코린 5,18)을 소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짓 평화와 자기 위안에 빠져 남북 분단의 갈등이 빚어내는 왜곡된 현실을 눈감아버린다면 신앙인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시어, 분단된 남북한이 “평화의 기초이며 평화로 향하는 길인 형제애”를 회복할 것을 바라셨고, 모든 신자에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죄악인 “무관심의 세계화”를 경계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아 올해를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타산과 야망으로 요원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망을 찾고 평화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 서독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마르 9,29)는 성경 말씀대로 끊임없는 기도를 펼쳐나갔습

니다. 그리고 동독에 특별한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마음을 열고 기도운동에 동참합시다. 특별히 매일 미사 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께 우리의 희망을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우리는 정부와 북한 당국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한 당국자들이 기존의 합의들을 서로 존중하여 분단과 냉전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와 화해를 앞세워야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만이 민족 화해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힘과 무기로써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통하여 군비를 축소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죽음의 어둠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께 간청합시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참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2015년 6월 1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2015년 환경의 날 주교회의 담화문(요약)



하느님 선물의 보호자가 됩시다!

창조는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느님 창조 사업은 지구 생태계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창조주 하느님의 숨결과 지혜와 선(善)이 드러나야 할 생태계가 온난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긴 기후 변화, 사막화, 지하수 오염, 자연재해의 증가, 환경 난민의 증가 문제들에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위기입니다. 발전의 모델로 삼아왔던 경제성과 효율성과 투자의윤 중심의 구조들을 반성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에너지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 연구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한 국가들은 자연 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연 에너지 도입 비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과 고리 등 위험한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대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겪은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지역민의 동의와 사회적 공론이 배제된 국책사업이 엄청난 폭력이며, 대도시민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힘없는 지역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현재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간의 진정한 발전과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앞장서 하느님의 선물인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이 누리려는 탐욕을 넘어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입니다. 소외받는 이웃과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친환경적인 행동이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이고 생태적 사회 구조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연은 단순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이 서린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 선물을 돌보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보호에 맡겨져 있고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선물의 보호자가 됩시다!”(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즉위미사 강론 가운데서)

2015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한 사람의 목숨 값은 얼마?

9세기부터 약 400년간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는 해적들의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해적이 주로 노리는 재물은 다름 아닌 사람, 즉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 대개 깔리 선에서 노를 젓다가 수년 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노예들을 구출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금을 모아서 몸값을 치르고 몇 명씩 노예를 되사서 해방시키곤 했습니다.

베드로 아르멩골은 그런 일을 하는 수도사였는데, 한 번은 딱 다섯 명 분의 몸값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다섯 명만 골라야 하니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명째 노예가 기뻐하기는커녕 비통한 고함을 지르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명에 포함되지 못해 아직 사슬에 묶여 있는 열일곱 살 난 자기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떠날 수가 없었던 아르멩골 수사는 해적들



복자 베드로 아르멩골(1238~1304)

에게 통사정을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흥정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르멩골은 그 소년에게 자기 수도복을 벗어 주고는 대신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르멩골 수사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해적선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686년, 베네딕도 14세 교황님은 아르멩골 수사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6월 7일	성 바오로(주교, 순교자, 콘스탄티노플, 350년), 성 로베르토(수도원장, 뉴민스터, 1159년) 성 안토니오 마리아 지아넬리(주교, 설립자, 보비오, 1789~1846년)
6월 8일	성 막시미노(예수의 제자, 주교), 성 메다르도(주교, 누아옹, 545년경) 성녀 멜라니아(과부, 410년), 성 윌리엄(주교, 요크, 1154년)
6월 9일	성 골롬바(신부, 수도원장, 선교사, 이오나, 521~597년), 복녀 디아나(동정녀, 볼로냐, 1236년) 성 에프렘(부제, 교회학자, 성서학자, 에데사, 304~373년), 성 프리모(순교자, 로마, 297년경) 성녀 펠라지아(동정순교자, 안티오키아, 304년)
6월 10일	성 란데리코(주교, 파리, 660년경), 성 레스티투토(순교자, 1세기) 성 마우리노(수도원장, 순교자, 쾰른), 성 보구밀로(주교, 그네젠, 1182년) 성녀 올리바(동정순교자, 팔레르모, 9세기경), 성 이타마르(주교, 로체스터, 656년경)
6월 11일	성 바르나바(사도, 순교자, 1세기), 성 펠릭스(순교자, 296년) 성 파리시오(신부, 트레비소, 1267년), 성 포르투나토(순교자, 296년)
6월 12일	성 나브르(군인, 순교자, 1777~1895년), 성 레오 3세(교황, 816년) 성 바실리데(군인, 순교자, 3세기말), 성녀 안토니나(순교자, 304년) 성 오누프리오(은수자, 이집트, 400년경), 성 요한(수사, 신부, 사아군, 1479년)
6월 13일	성녀 아퀼리나(동정순교자, 시리아, 3세기말), 성녀 펠리쿨라(동정순교자, 로마, 90년) 성 안토니오(신부, 교회학자, 설교가, 파도바, 1195~1231년)

■ **투스징포교베네딕도수녀회 신축 건물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투스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신축 건물인 파티마 홈, 해성유치원, 베네딕도 교육관, 스콜라스티카 분원의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 **제16회 카리타스 체육축제**



대주교님께서는 5월 29일(금) 오전 11시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카리타스 체육축회에 참석하시어 함께한 이들을 격려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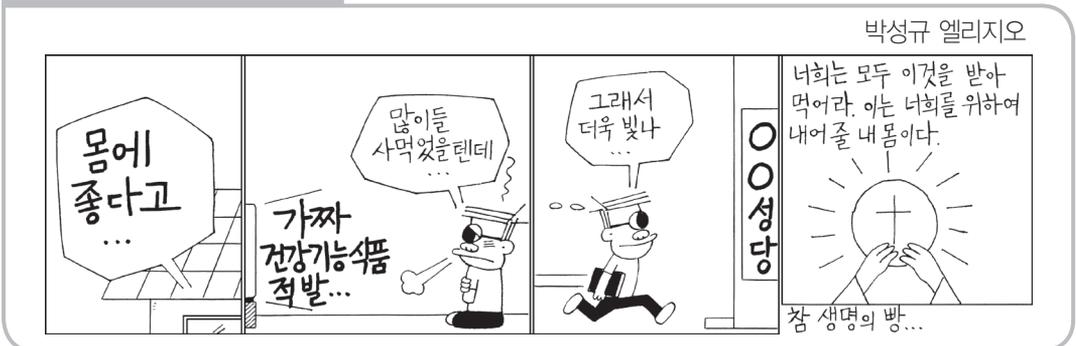
<23주간, 2015. 6. 7.~13.>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편 47-52장	53-59장	60-66장	67-70장	71-74장	75-78장	79-84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시편의 유형에 따라 찬양 시편, 탄원 시편, 감사 시편, 군왕 시편, 지혜 시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찬양 시편 : 공동체 전례에서 사용하던 노래인데, 구조는 먼저 찬양 초대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위업, 곧 창조 업적과 구원업적(특히 이집트에서의 해방)이 열거 되고 마지막으로 전례 주관자의 찬양 초대가 다시 나온다. 찬양 시편은 하느님을 유일하고 향구한 구원자로 천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누리려면 하느님께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하느님의 왕권 찬가'-온 세상의 임금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47:93;96-99편)
 - ↳ '시온의 노래'-하느님의 거룩한 산 시온과 도성 예루살렘을 찬양(46:48;76;84;87;122편)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가짜가 판치는 세상



⑥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안내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8일(월) 11: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8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8일(월) 11:00 황성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8일(월) 11:30 범어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8일(월) 11:00 신평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6.13(토) 14:00, 예수회 관구본부
주제: 부제들이 들려주는 성소 이야기
문의: 예수회, (010)6245-1608
<http://cafe.daum.net/vocsj>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시니어를 위한 치유 피정
기간: 매월 셋째주 화요일, 수요일
장소: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326-5004

교육 | 모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6.5(금) 17:30~7(일)
4박 5일: 6.8(월) 14:00~12(금)
이냐시오: 6.8(월) 14:00~12(금)
문의: (031)946-2337~8
<http://www.jesumaum.org>

골롬반 평신도 해외 선교 관심자 모임

일시: 6.14(일) 14:00~17:00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문의: (02)929-4841
<http://www.columban.or.kr>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기간: 6.20(토) 17:00~21(일)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대상: 남녀 청년(선착순 30명)
신청: (010)9056-9005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 길' 기도모임

일시: 6.21(일) 14:00, 상동성당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9330-3104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캠프: 1차 7.18 / 2차 7.25(4주)
대학생연수: 1차 6.28 / 2차 8.29(8주)
부모동반연수: 7.18(토) 출발(4주)
특징: 영어연수, 체험활동, 해외봉사
문의: 656-6655(ARS 4번)

46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3~8.16(3주)
세계 학생들과 연수 & 런던 관광
대·일반: 6.28~8.9(6주 or 장기)
홈스테이 & 세계 학생들과 연수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2015 마리아폴리 초대

기간: 7.24(금) 14:00~27(월)12:00

장소: 코모도 조선호텔(경주보문단지 내)
주최: 마리아사협회(포콜라레)
신청: 홈페이지 참조
[http:// www.focolare.or.kr](http://www.focolare.or.kr)

제32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25(토)~8.2(일) 8박 9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정훈 신부, (010)5607-2046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하는 순례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4박 5일)
비용: 일본 성지순례 58만 원
문의: 천주교사도지회(팔로티회),
(010)4239-1929

요양원 입주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 받은 어르신
문의: 파티마홈(베네딕도수녀회 운영)
324-1188 / (010)8595-1186

갈릴래아 청년 축제 '별처럼 빛나라'

기간: 10.9(금)~11(일)
장소: 충북 음성 꽃동네
대상: 20~35세 미혼남녀, 수도자
신청: 다음카페 '갈릴래아청년축제'
주최: 한국남녀 수도자 장상연합회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뇌전증학회장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비오의원 | 아토피 |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여드름 | 흉터 | 기미 | 갈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 달성교회)
1호선 성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김 성 철(비오)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교육 | 모집

2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야간)개설

기간: 6.18~7.16(매주 목, 5주간)
 시간: 19:00~22:30 / 회비: 10만 원
 장소: 3대리구 감삼성당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스카우트 지도자 중급과정 교육

기간: 6.26(금)~28(일) 2박 3일
 장소: 명곡 대구스카우트 교육원
 대상: 학생지도에 관심 있는 분 모두
 참가비: 10만 원(이외 청소년국지원)
 마감: 6.22(월) / (010)2810-8661

6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6.13(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성경은 인생문제의 총체적 해답서
 강사: 이관배(스테파노)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근로자회관 6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6.8(월) 월 3만 원
 기초: 창세기(월 10:10), 마르코(수 10:10)
 중급: 로마서, 민수기(화, 금 10:10)
 저녁: 민수기, 로마서(화, 목 19:10)
 문의: (010)6506-3303, 관덕정(목 10:00)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민요교실, 한국무용, 플룻, 우쿨렐레, 바이올린, 통기타, 오카리나, POP, 톨페인팅, 초크아트소품, 바리스타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주간: 월~금 / 야간: 월,수,금,토(개강6.28)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대/차비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이관배 신부의 신구약 특강(9개월코스)

1차(총9차): 7.17(금)~19(일)
 장소: 미리내성지 내 목상의집
 강의: 모세오경 / 10만 원(각 회당)
 문의: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010)4762-9372(문자접수가능)

2015년 하반기 임상사목교육 기본과정

기간: 8.11~12.2(매주 화 9:30~17:3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문의: 940-7799 / 7203
 cpefatima9099@hanmail.net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제주기사사도회, (064)758-6476 / (010)4566-6476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경복(블루시아노), 손지연, 손성구(스테파노), 이태봉(베드로)
 문의: 253-9550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교구청 문화홍보실 직원 채용

자격: 30세 미만 여성 1명
 포토샵, 일러스트 가능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6.17(수) 17:00까지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교구에서 운영하는 「데레사소비센타」는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곳뿐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데레사농수축소비센타」는 개인 소유로서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더편한내과
 부설: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궁철빌딩 3층 (구 달성궁철)
 원장 윤석진 (아코보) ☎ 053)651-758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입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원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작고 행복한 결혼식
 하우스 웨딩 전문
메종 보네르
 서현희 (헬레나)
 ☎ 053)421-3447
 http://www.maison-bonheur.co.kr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코리아알트만 대구은행역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순천역 2번 출구